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자막방송 제작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봉사'

장애인들의 눈·귀되어 보고 듣는 즐거움 선물

영화 '내 생애…' 화면 해설·한글 자막 제작 장애인 초청 상영회

지난 14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김종일·이하 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는 특별한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30여 명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옴니버스 영화인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감상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성우의 화면해설 덕분에 배우들의 움직임을 떠올렸고, 청각장애인들은 자막방송을 통해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영화를 봤다는 시각장애인 이길녀(6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화면해설 덕분에 주인공의 방과 옷차림까지 상상하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있었을까.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준 이들은 바로 센터 자막방송 제작교실 수강생들이다. 학생, 직장인, 주부 등 8명이 지난해 9월 개설된 센터의 자막방송제작교실 과정을 수료 한 뒤 '자막제작단'을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처음엔 UCC 제작이나 단순한 호기심 등에서 시작될 만큼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각자 달랐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해' '자막 원고 작성법' '자막제작 실습' 등 10차례에 걸친 강의를 마친 이들 수강생들에겐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되찾아주자'는 하나의 공동목표가 생겼다.

2시간 분량의 영화 한 편에 삽입할 자막을 제작하는 데는 원고작성부터 자막 완성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나 외래어 대신 알기 쉬운 어휘를 선택해 자막용 원고를 따로 만들었다. 또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배경음악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자막을 완성했다. 매주 2~3명씩 번갈아 가며 자막기를 이용해 영화 화면에 자막 삽입 작업을 진행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화면해설 녹음까지 마치고 나서야 최종본이 나올 수 있었다.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1기 자막제작단이 자막기와 편집장비를 이용해 영화에 한글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자막제작 봉사에 참여했던 주부 황진희(43·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이번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고 소리를 느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650-0340~4.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막제작교실 꾸준히 열어 장애인 문화 갈증 풀어주겠다"

김종일 광주시청자미디어 센터장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 김종일 센터장은 "이번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상영회'를 계기로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영화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수 있는 이같은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막제작교실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 9개월째를 맞는 김 센터장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데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라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좋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방송물에 대한 제작 계획도 갖고 있다.

김 센터장은 "시청자 참여 방송의 취지는 소외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후 1975년 전일방송 PD로 방송계에 입문했으며, KBS 광주총국 취재부장과 보도국장,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비오 몬시뇰 축하서임식이 20일 오전 11시 광주시 임동 주교좌 성당에서 성유축성미사와 함께 열렸다. 사진 왼쪽 앞줄부터 최창무 대주교, 김희중 보좌주교, 윤공희 대주교, 조비오 신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환경 사랑 실천 참신앙의 길 걷겠다"

광주대교구 조비오 몬시뇰 서임 축하식

"남은 삶 더욱 열심히 신앙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20일 오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 주교좌 성당에서 조비오 몬시뇰 서임 축하식이 열렸다. 고위 성직자 품위인 몬시뇰은 교황의 명예전속 사제를 말한다.

조 몬시뇰은 앞으로 "참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 환경을 아끼는데 힘쓰겠다"며 "사제로서의 역할과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조 몬시뇰은 1969년 사제 수품을 받은 뒤 나주·진도·구례·광주 풍암동 성당 주임, 가톨릭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6년 8월 퇴임 후 현재 광주시 남구 소화자매원 이사장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 대표로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도암

가치관

"누가 싸움터에 나가 혼자서 백만 대군을 무찔렀다 해도, 어찌 스스로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긴 장부의 진정한 승리에 비하랴.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누구를 이기는 것보다 빛나는 승리, 자기를 꺾고 자기의 항복을 받은 자 바야흐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리라."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소중한 것에 대한 차등적 순위가 가치관이다. 그것의 정점이 우리의 건강한 행복에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다. 문명의 발달로 밥을 짓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가마솥, 냄비, 압력솥 등등으로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솥은 변해도 밥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지 솥을 먹지는 않는다. 솥의 발달이 생활의 편리는 주지만, 밥의 질을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의 건강은 밥의 질에 달려 있다.

약 2600년 전 그리스에는 이솝이라는 노예 출신의 현자가 있었다. 동물과 사람 그리고 신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우화를 지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본성과 능력을 표현한 것이고, 말은 외적으로 꾸며진 인간의 모습이다. 당시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우화를 빌어 표현한 인간에 대한 보고서인 것이다.

이솝의 인간에 대한 통찰은 과거의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인간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것이지 인간의 심성이 성장발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인격도 더불어 성장하면 좋으련만, 인품의 성장은 물질의 발전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

물질문명과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미국식 경제를 모델로 발전을 꾀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당연히 행복지수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발달과 함께 욕망도 따라 성장하면서 불만족의 지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물질문명의 발달을 반대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히말라야만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도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 욕망은 충족되면 다시 커진다." 현대는 소욕지족이란 덕목이 필요한 것 같다. 소욕지족이란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 만족(행복)의 상태에 머물라는 뜻이다.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자신과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보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불편하게 살자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여 능력을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끝 모르고 커지는 욕망을 따르다가는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행복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송광사 율원〉

광주공원서 23일 부활절 연합예배

기독교계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23일)을 맞아 '2008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공동주최로 전국 3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광주에서는 23일 새벽 5시 광주공원 광장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올 부활절연합예배의 주제는 '생명·나눔'으로 생명은 환경, 나눔은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이후 서해안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온 기독교계가 환경 회복과 그리스도 부활의 신학적·실천적 의미를 접목해 정한 주제다.

/이은미기자 emlee@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시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틀류창고, 복지시설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피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빙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용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핸 010-8004-6669
섬 ● 완도개인독섬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고흥바닷가 매실밭1300평
가든.별장부지 평당5만원
고흥농장.부지최적3천평
차량진입가능.평당2만원
상가부지.
고흥조선소. 버스터미널옆
1300평. 평당 50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문입구 삼거리)
▶토지매매
·나주시 안동동 관리지역 대지 15,525㎡ 잔디로 있음 공장부지 등 적합 매매가 4억
·북구 삼각동 주거지역 면적843㎡ 매매가 평당 4억
·광산구 송촌동 생산녹지 답 1,941㎡ 매매가 2억5,000만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83,558㎡ 국도변접 농림지역 매매가 19억,000만원
·북구 각화동 3동 주거지역 면적 427㎡ 매매가 1억7,000만원
·담양군읍 산리 관리지역 임야 1,400㎡ 2차선접 전원 주택지 최적 매매가 1억5,00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2차선 국도접 관리지역 6,869㎡ 매매가 1억6,000만원
·광산구 월곡동 월곡소재지 2동주거지역 395㎡ 매매가 1억3,000만원
·서구 화정동 일등지 228㎡ 투룸12세대가 편 매매가 1억,000만원
▶건물매매
·북구 두암동 상권좋고 시가리로나 대지 1,023㎡ 건평 5,473㎡ 세보증금 20억에 월4,000만원 용지 18억 매매가 60억
·북구 우산동 우등도서관 건너편 대지 208㎡ 건평379㎡ 세보증금 6,000만원 월800만원 매매가 2억7,000만원
·전대 정문앞 대로변코너 대지176㎡ 건물 538.2㎡ 세보증금 8,700만원에 월180만원 매매가 4억
·북구 풍향동 교대앞 대로변 대지 195.4㎡ 건물 697.3㎡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250만원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5억
·북구 일곡동 상업지역 대지 378㎡ 건 1550㎡ 지하1층 지상5층 세2억5,000 보증금에 월800만원 매매가 11억
·북구 운암동 대지 300㎡ 건평 998.6㎡ 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5억 3,000만원에 월440만원 매매가 14억
·북구 우암동 대로변 760㎡ 건평 4,468㎡ 세보증금 14억에 월 3,000만원 매매가 56억
·서구 농성동 대로변코너 대 512㎡ 건평 1,139㎡ 지하1층 지상4층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315만원 용자 5억포함 매매가 10억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앞 대로변 대지 146.3㎡ 2층 135.2㎡ 매매가 1억 4,000만원
·북구 용봉동 현대APT정문앞 대지 370㎡ 건평 약230평 (단층 조립식) 세보증금 4800만원/월180만원 매매가 4억3,000만원
·북구 용봉동 우산주공 정문앞 식당건물(현재성업중) 대지 206㎡ 건평 132㎡ 최고요지 매매가 4억3,000만원
▶급매 고시원매매
·북구 용봉동 상대뒷편 대지 332㎡ 건평 902㎡ 건물 2층A.B동 실8실 필수임 약1600만원 용자 3억8,000만원 매매가 8억5,000만원
▶주유소및 부지매매
·북구 오치동 20m도로변 대지1,480㎡ 주유소 설입중 월매출 약7억 매매가 14억
※주유소, 충전소, 중간다량보유, 중간점수환영
※원룸, 고시원 물건다량보유 상담요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태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오치동	주공	17/14층	3천9백	3천1백
치평동	현대	32/5층	1억4천	1억9백
두암동	무등파크	23/16층	6천5백	4천5백
치평동	금호, 대우	24/13층	8천8백	6천1백
쌍촌동	성우행복한집	15/1층	1억6천	8천9백
화정동	한양	32/12층	1억1천	7천7백
송정동	리인	24/7층	5천6백	3천8백
용봉동	중흥	49/5층	1억5천	1억5백
양동	금호	26/6층	7천7백	5천4백
두암동	무등파크	16/16층	6천5백	4천5백
운림동	보리빌	7/2층	2억	1억1천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 시우니	156/401	14억	4억9천
중흥동	39/41	1억2천	6천7백
신안동	50/234	5억6천	3억1천
산수동	424/406	18억	8억
신안동 모델	58/223	5억6천	3억1천
누문동	41/34	4억7천	2억1천
송정동(옛 모델)	97/142	5억2천	2억3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우산동	45/58	1억2천	5천4백
잠성	842/163	9천4백	5천2백
문흥동	57/31	1억5천	6천8백
담양	157/29	5천6백	3천9백
쌍촌동	100/27	1억6천	1억2천
산수동	38/21	7천5백	4천2백
담양	190/42	3천9백	2천2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월산동 11가구	79/123	3억	1억6천
	월계동	100/188	4억3천	3억
	일곡동 12가구	91/224	5억3천	2억3천
상가주택	신수동	191/200	8억	3억5천
	충장동	28/124	4억7천	2억9백
	학동	156/81	5억5천	3억8백
	비아동	66/116	2억8천	2억
	중흥동	94/127	4억8천	3억8천
	지산동	483/282	10억7천	4억8천
	소태동	112/199	5억4천	2억4천
	산정동	69/168	2억5천	1억4천
	화순	77/134	3억3천	2억3천
근린상가	임동	8/1층	4천8백	3천3백
	월계동	62/4층	3억1천	1억3천
	화정동	11/3층	1억2천	4천3백
	곡성	60/2층	1억1천	6천5백
	내방동	73/3층	1억3천	6천8백
	전월동 현대	57/3층	1억7천	7천6백
	쌍암동	82/2층	4억6백	1억5천
	두암동	61/2층	1억1천	3천9백
오피스텔	우산동	28	7천9백	3천5백
	치평동	18	6천1백	2천7백
	구동	12	3천7백	2천7십
	학동	12	2천2백	1천2백
	치평동	30	1억3천	5천9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	82	1천9백	1천5십
광산구 지죽동	480/465	11억	6억2천
광산구 용동	106	1억9천	1억5천
나주 남평	599/339	3억2천	2억2천
장성	174	9백	5백
담양 공장	883/386	3억1천	1억7천
영암	361	6천9백	4천6백

법원경매전문회사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심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주택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층/면적(㎡)	감정가	최저가
농성동/대10건398.5	7746만	5423만
금동/대129건95.4	9016만	6312만
우산동/대149건193	1억2200만	5440만
소태동/대411건300	2억8200만	1억5000만
월계동/대220건217	1억7200만	1억2100만
문흥동/대188건101	1억5400만	6880만
쌍촌동/대180건233	1억3220만	8580만
두암동/대138건136	8950만	6265만
월산동/대147건171	1억3422만	7520만
방림동/대139건113	9130만	6400만

▶아파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명칭/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한양/105(32)	1억1000만	7700만
치평동/금호대우/79(24)	8800만	6160만
금호동/대주/82(25)	8400만	5880만
진월동/한신/79(24)	7500만	5250만
문남동/주공3단지/69(21)	5000만	3500만
문남동/삼성/89(27)	8500만	5950만
용두동/임신트윈/79(24)	6200만	4340만
두암동/삼익/105(32)	7500만	5250만
일곡동/롯데/135(41)	1억9000만	1억3300만
용봉동/중흥/158(48)	1억5000만	1억5000만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나주송월동건설사무실/대210건615	4억5400만	2억5400만
오치동/참고부지/대945건660	5억9127만	4억1388만
산안동/사무실겸학원/대168건774	5억5700만	3억1200만
유동/이동통신대리점/대105건944	2억7000만	1억5100만
중흥동/사무실겸학원/대354건1298	10억8000만	4억5100만
화순읍운리/축산판매장/대476건433	8억3151만	3억7200만
불로동/웨딩홀/학원/대198건676	6억2219만	4억550만

▶근린주택/다세대(빌라)/원룸 상담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매곡동/사무니텔스/대2058건5000	61억3300만	27억4800만
중흥동/근린주택,3층/대309건417	4억7600만	3억8085만
월계동/근린주택,3층/대282건427	2억8000만	2억300만
매곡동/학원겸용/대428건1066	8억8000만	2억8600만
산수동/남양빌라/201(61평)	2억	1억1200만
일곡동/원룸,10가구/대301건740	5억2800만	2억4000만
지산동/원룸,187구/대890건744	5억4000만	3억7800만

▶토지

소재지/지목/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담양월봉리/답/1679(508)	1억8500만	1억3422만
산포면나가리/답/52739(1597)	2억2700만	1억5890만
화순한천면/답/1778(537)	1900만	1310만
담양군용면/대지/957(289)	7200만	5030만
화순동리면/전/4558(1379)	5750만	2060만
금천면원곡리/답/1534(464)	3835만	2684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흥읍/하남공단/대1712건343	9억3000만	6억6100만
지죽동/맹동공단/대1588건539	11억	8억2700만
용동/맹동공단/대1882건1102	8억2380만	5억7680만
용동/맹동공단/대3339건1396	12억2490만	8억5800만
장성월평면/대948건600	3억8400만	1억7200만
나주동강면/대798건362	4억5570만	3억1900만